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소재부품정책과 나기용 과장(044-203-4260), 김태형·이대길 사무관(4264~5)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 개막
- '97년(흑자 전환) 이후 31배 성장, 첫 무역흑자 1,000억불 돌파 -

□ 2014년 12월 12일,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 본격 개막**

○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던 소재부품 산업이 **'97년 흑자**(34억불) 전환 이후, **17년간 31배 성장**하며 **사상 첫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

- '14.12.11 현재 **수출 2,598억불, 수입 1,594억불, 흑자 1,004억불** (통관기준)

구 분	1996	1997	2000	2009	2013	2014 (잠정)
무역흑자(억불)	△37	34	93	512	975	1,070

○ 우리 경제가 과거 **조립산업** 중심에서 '00년대 이후 **소재부품 산업 중심**으로 탄탄하게 **체질 개선에 성공**했음을 시사

- 또한, 수출·입이 모두 확대되는 가운데 이룬 **'성장형 무역흑자'**라는 점에서 **향후 소재부품 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긍정적

□ **(지역별) 對중국 흑자**(48%)가 가장 크며, 최근 **ASEAN** 등으로 **다각화**

○ 미국, EU 등 **선진국**에 대해서도 '07년 이후 **무역흑자로 전환**하였으며, 만성적인 **對日 무역역조**도 **'10년 이후 지속 감소** (연평균 5.5%)

* 對日 소재부품 적자(억불) : ('10) 243 → ('11) 228 → ('12) 222 → ('13) 205

□ **(품목별)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소재·부품 **무역흑자 확대를 견인**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이 최대 흑자품목**이며, 최근 들어 **수송기계부품, 전기기계부품, 화학소재** 등도 흑자품목으로 부상

* 무역흑자 추이('00→'13, 억불) : 전자부품(63→405), 수송기계부품(△2→217), 전기기계부품(△15→84), 화학소재(15→175)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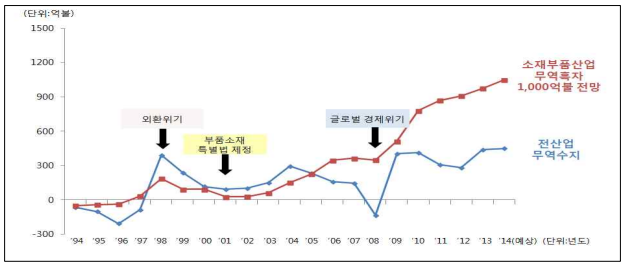
1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 주요 경과

□ 우리 **소재·부품 산업**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벗어나 '97년 사상 첫 흑자 전환에 이어 **17년 만에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 개막

○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과거 **조립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소재부품 산업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음을 시사

< 소재·부품 및 全산업 무역 실적추이 (단위 : 억불, %) >

구 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3
수출	소재·부품(A)	620	820	1,238	1,682	1,710	2,290	2,553	2,631
	全산업(B)	1,504	1,938	2,844	3,715	3,635	4,664	5,552	5,597
	비중(A/B)	41.2	42.3	43.5	45.3	47.0	49.1	46.0	47.0
수입	소재·부품(A)	593	758	1,011	1,318	1,200	1,512	1,685	1,655
	全산업(B)	1,411	1,788	2,612	3,568	3,231	4,252	5,244	5,157
	비중(A/B)	42.0	42.4	38.7	36.9	37.1	35.6	32.1	32.1
무역수지	소재·부품(A)	27	62	227	364	512	779	868	975
	全산업(B)	93	150	232	146	404	412	308	441
	비중(A/B)	29.2	41.1	97.8	248.3	126.7	189.1	281.7	221.3



□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자동차, 철강 등 자본재 산업 육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에 주력**

○ '90년대까지 **조립산업 중심의 성장**으로 주요 소재부품 기술력은 선진국의 60% 수준에 그쳐 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 산업이 취약**

○ 이에 '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제1차 소재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산업 육성 추진**

- '01년 이후 **약 3조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01년~'14년)을 투입하여, 단기간 **선진국 추격**(Catch-up)이 가능한 실용화 기술개발 집중

- '10년대 들어, 고부가가치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10대 일류 소재***(WPM) 개발 등 **미래시장 선도**(First Mover) 역량 강화 추진

* World Premier Materials('10~'19) : 세계시장 10억불, 시장점유율 30% 가능한 신소재

☞ 우리 소재부품산업은 **소재부품 5大 강국**('11년)* 도약에 이어,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14년) 달성 등 성과 창출

* 세계시장 순위('11): 中(16.7%) 獨(10.4%), 美(9.6%), 日(7.4%), 한국(4.7%)

☞ 2020년 세계 **소재부품 4大 강국 도약에 청신호**

2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주요 내용 분석 ('00년~'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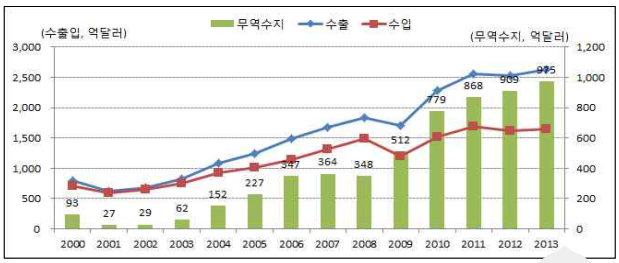
□ **(총괄)**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은 수출·입, 흑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성장형 흑자'**를 보이는 가운데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 '00년~'13년간 **소재부품 수출은 3.3배 증가, 수입은 2.3배 증가**하며, 수출 증가폭(+1,831억불)이 수입 증가폭(+949억불) 보다 약 **2배 증가**

○ 특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재부품 무역흑자**가 그 이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완충제 역할**도 수행

* 금융위기 이전('00→'07) : + 271억불 / 금융위기 이후('08→'13) : + 627억불

< 소재부품 수출입 추이 ('00~'13) >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주요 원인)** 우리 소재부품의 **경쟁력 향상**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07~'13년), 우리 소재부품 수출 증가는 우리 **소재부품 경쟁력**(61.6%), **세계시장 수요증가**(48.1%) 등에 기인

* 불변시장점유율 분석(CMS : Constant Market Share) 분석을 통해, '07~'13년간 우리 소재부품의 대세계 수출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증가했는지 분석(산업硏)

○ '00년~'13년간 **소재부품의 무역특화지수***(TSI)도 4배(0.06→0.23) 가까이 높아지며, 전 산업(0.04)에 비해 **매우 높은 경쟁력 향상**을 시현

- 특히, **수송기계부품**(-0.03→0.58), **전자부품**(0.11→0.31), **화학소재**(0.07→0.24) 등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

* (무역특화지수) = (수출-수입) / (수출+수입)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 -1이면 완전 수입특화를 나타내며, 값이 커질수록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

□ **(품목별)** 소재부품 무역흑자('13년) 중 **부품산업이 77%, 소재산업이 23%**를 차지하며, 부품산업이 소재부품 무역흑자 확대*를 주도

* 부품산업 무역흑자 규모 : ('00년) 49억불 → ('13년) 755억불 (+706억불)
소재산업 무역흑자 규모 : ('00년) 44억불 → ('13년) 220억불 (+176억불)

○ 무역흑자 규모로 볼 때, **전자부품이 최대 흑자품목**('13년 405억불)으로 **가장 큰 규모의 무역흑자**를 내며 1,000억불 달성을 견인

- 또한, **수송기계부품은** '00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면서 **2대 흑자품목으로 부상**('00년 △2억불 → '13년 217억불)하였으며, **화학소재**도 '00년 대비 **10배가 넘는 무역흑자 증가세**('00년 15억불 → '13년 175억불)를 보임

○ **무역흑자 기여율***도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화학소재 순으로 높음

- ①**전자부품**(43.7%) ②**수송기계부품**(22.2%) ③화학소재(16.1%) ④전기기계부품(10.5%)로 4개 분야(92.5%)에서 소재부품 무역흑자를 주도

* 무역흑자 기여율(%) : (품목별 무역수지 변동액) / (소재부품 전체 무역수지 변동액)

< 주요 품목별 소재부품 무역흑자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화학소재	15	71	144	186	160	175
전기기계부품	△15	△12	33	53	75	84
전자부품	63	126	453	368	348	405
수송기계부품	△2	49	137	175	200	217
소재부품	93	227	779	868	909	975
소재	44	56	121	202	218	220
부품	49	171	658	665	691	755

□ **(지역별) 중국이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으며, 최근 들어 ASEAN,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흑자 상대국 확산**

○ '00년대 중국 경제 급성장에 따라, 중국은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13년 470억불)이자 **최대 교역국**('13년 1,360억불)으로 부상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SEAN**('13년 218억불)**, 중남미**('13년 124억불) 등 **신흥시장**에서도 소재부품 무역흑자가 **빠르게 확대**

- 최근 **對中 소재부품 무역흑자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對ASEAN 무역흑자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을 견인

* 소재부품 무역흑자 연평균 증가율('10~'13) : 중국 0.8%, 아세안 24.5%, 중남미 12.1%

○ 국내 소재부품 경쟁력 향상에 따라 **미국, 유럽 등 對선진국 무역수지도 '07년 이후 흑자로 전환**

○ 한편, 만성적인 **對日 소재부품 무역역조**도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연평균 5.5% 감소)되면서, 수입의존도도 20.8%까지 하락

< 최근 對日 소재부품 교역 주요 현황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무역수지(억불)	△201	△243	△228	△222	△205
수입의존도(%)	25.3	25.2	23.6	23.0	20.8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지역별 소재부품 무역흑자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중국	44	200	459	426	434	470
아세안	45	36	113	162	189	218
중남미	26	34	88	98	108	124
중동	20	34	82	111	124	103
미국	△3	△11	31	33	44	52
유럽	9	△17	57	49	29	17
일본	△117	△161	△243	△228	△222	△205
기타	69	111	192	217	204	196
전세계	93	227	779	868	909	975

□ 아직 **핵심 소재부품 기술***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며, 미국 양적완화 종료, 엔저 추세 지속 등 대외환경도 **어려움 상존**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OLED용 발광소재(60%), 탄소섬유(50%) 등

○ 2020년 **'소재부품 세계 4대 강국**(현재 5위)**'**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 육성 전략인 **「제3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13.11월)」을 바탕으로,

○ '200대 미래 시장선도형 소재부품' 개발, 1,000억원 규모 '소재부품 정책펀드' 조성 등 **다각적인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김태형 사무관(☎044-203-4264), 이대길 사무관 (☎044-203-426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한주 팀장(☎02-6009-39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